



과 거에 비하여 경제적 여건이 많이 좋아지면서 식생활, 위생 및 주거환경 등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풍족한 식생활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좋게 만들면서 사춘기가 빨라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영국에서 생리기 시작되는 시기 등 사춘기의 시작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0년에는 19세였으나 1890년 15세, 1998년에는 13세로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국내 통계청에서 발표한 체력검사에서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키가 많이 커졌다고 한다.

위생 및 주거환경의 개선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평균수명의 증가를 가져왔다. 세계적으로 남자의 평균수명은 70세에 가까워졌으며 여성은 이미 70세를 넘겼다.

국내에서 평균수명의 증가는 과거의 환갑의 의미를 쇠퇴시켰다.

얼마전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진찰받던 환자 분이 다음 진료 약속을 미뤄달라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해서 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은 아직 늙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벌써 환갑이 다됐다고 한다.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환갑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자식들이 환갑잔치를 해주겠다는 말에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살만큼 살았고 늙었으니까 그만 살고 죽으라는 것이 환갑잔치인 것같았다. 친구들과 설악산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과거의 환갑노인과 현재의 환갑노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과거 환갑이란 나이는 북망산에 갈 나이로 인식되었으며 자식들이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는 오래 살았다는 존경의 표시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환갑을 넘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환갑잔치는 더 이상 존경의 잔치는 아니며 속스러운 잔치이며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에 들면서 식생활이 좋아지다보니 노년 분들에게 여러모로 변화를 가져왔다. 나이에 비해 외모뿐 아니라 체력이 젊어지고 있다. 신체적 여건의 향상은 생각도 젊어지며 멋있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아직 젊고 늙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발기력만은 일찍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골프가 싱글이라는 환갑이 막 지난 멋진 환자 분이 있다. 매년 병원에 올 때마다 웃차림이 달라지며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골프를 늦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치다보니 싱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프라는 운동이 일찍 시작하고 배우지 않으면 싱글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석이다. 50살이 넘어서 골프를 시작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잘치게 된 것은 순전히 노력 덕분이다. 옛날에 자신을 가르쳤던 친구들과의 내기에 지는 적이 드물다는 것이다. 자신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편이며 남들과 경쟁에서 항상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성생활만은 자신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한다. 앞으로도 1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기왕이면 짧게 사는 법은 없느냐는 것이다. 50세까지도 성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성생활을 못한다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성기는 벌써 기능을 다했다는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일을 시켜보고 싶는데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다. 과거에야 나이를 먹으면 으레껏 성생활은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했으니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 나이를 먹었다고 성생활에 흥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인 분과 좀더 적극적인 분이 있을 뿐이다.

단지 주변 보기에 참피하다는 생각에 자기자신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자식 보기에 참피하고 며느리 보기에 주책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조심스러운 뿐이다.

나이에 따라 성적능력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젊어서는 언제나 성적 욕구로 충만하였으며 언제든지 발기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성적 욕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일단 발기가 되더라도 발기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바로 사그러진다. 사정량도 적어지고 사정을 하더라도 쾌감이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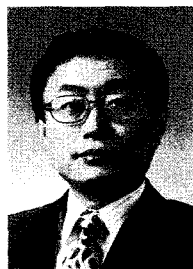
노년이 가까울수록 발기가 잘 안되다보니 아예 성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다. 어쩌다 한차례 시도하였던 성관계가 실패로 마무리 지어지면 허탈해진다. 약해진 모습에 갑자기 절망을 하며 헛된 욕구를 가졌던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더 이상 성관계를 요구하지 못하게되며 상대의 요구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절실하고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면도 있다.

짧게 사는 법은 스스로 노력하는데 달려있다. 본인이 관계를 갖고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이를 먹었다고 무조건 전혀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생리적으로 발기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강직도가 좀 약할 뿐이다. 남성의학은 모자라는 힘을 도와줄 것이다.

최근 나이에 따른 성욕이나 발기력감퇴는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밝혀지고 있다. 부족된 호르몬을 보충한 결과 잃었던 성욕을 되찾기도 한다. 발기력이 좀더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립선질환이 없다는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발기력 감퇴는 발기유발 주사뿐 아니라 수술로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음경보형물수술은 영구적인 인공성기를 만들어준다. 본인이 필요하면 발기가 되며 평상시에는 남이 봐도 수술여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원할 때면 원하는 시간만큼 발기가 가능하다.

물론 느낌도 그대로 있으며 젊은사람의 경우에는 임신도 가능하다. 병원을 찾는 용기만 가진다면 간단한 노력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젊어질 수 있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